

#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월간양계 창간 54주년에 즈음하여

양계인 및 관련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월간양계가 올해로 창간 54주년을 맞이하였다.

최근에는 편집기술과 인쇄술이 발전해 요즘 잡지들은 깔끔하고 선

명하게 인쇄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 양계협회 자료실에는 1969년 11월 처음 발간된 책부터 현재까지 모든 양계역사를 담은 월간양계가 세월을 말해주듯 책장을 뽁뽁히 채우고 있다. 그 때의 자료를 보자하니 많은 세월의 느낌과 함께 과거의 양계산업 현장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월간양계를 마치고 선배님들이 써내려간 편집후기를 보면 그 고충을 가히 짐작할 만 하다.

월간양계 첫호에 쓴 편집후기를 보면 ‘산모의 출산고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은 들은 풍월에 불과하지만, 정말로 하나의 생명체를 낳을 보이게 하기까지의 고통이 이토록 심할 줄이야……’ 당시 원고를 준비하고 책을 펴내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호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잡지를 만들면서부터 노상 눈알이 빨갛게 토끼눈 처럼 충혈이 되어 있고 항상 배안에 독을 찬 것처럼 허덕 허덕대고 있는 미스터 김을 볼 때마다 원 저렇게 힘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대상은 월간양계 초대 편집장을 지낸 김영옥(전 제일사료) 사장에게 한 표현이었다. 이러한 글을 읽다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월간양계를 만들던 초창기에는 손으로 직접 쓴 원고지를 받아 타이핑을 맡겨 인화한 후 글자 판에 문장을 잘라 붙여 편집하는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다. 지금보다 몇배 더 힘든 작업이었고 인력도 많이 필요했다.

인쇄과정도 지금은 4색인쇄를 한번에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4개의 필름을 일일이 구워 판에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해야 했다. 핀이 안맞으면 색깔은 물론 글자가 이중으로 인쇄되면서 책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여건은 좋아졌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취재나 인터뷰, 특집기사 등 시사적이 내용들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편집 방향과 편집 내용을 구성해 가는 것도 기계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농가들의 필요한 부분을 뽑아 정보를 제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지금까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양계인 및 관련 업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 AI 발생 가능성 높아져

기본적인 방역수칙 생활화가 농장을 지킨다

지난 10월부터 AI특별 방역기간에 돌입한 이후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개최된 가축전염병중앙예

찰협의회에서 지난 2022년보다 금년이 전 세계적으로 야생조류 AI 발생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H5N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4일에는 일본 홋카이도지역의 야생조류에서 H5N1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바이러스가 이미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조기예찰을 통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15건의 H5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0일간 11개 시도에서 발생한 75건의 농장발생이 있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살처분이 크게 늘면서 계란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온 것에 비하면 살처분범위 조정, 선제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금년에도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AI 방역 및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혹여 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각오이다. AI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한 다해도 농장내 진입을 막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 방역기관, 농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 준다면 AI를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장에서는 AI 방역기간 동안 농장주변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해야 하며,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농경지나 텃밭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외부에 보관해야하며, 주요 출입구가 아닌 뒷문 등으로의 출입을 하지말아야 하며 부득이 해야할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 할 때 AI는 결코 우리 농장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양계**